

전남 서부권

전남문예재단 토요 그림경매 6주년

전국에 남도미술 빛내다

지역작가 작품 2938점 구매 2340점 판매

진도 윤립산방에서 6년째 열리고 있는 토요 그림경매가 전국적인 명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예술품의 경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13일 전남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남도 예술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토요 그림경매가 지난 11일 6주년을 맞아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물론 외지인들에게 남도 미술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예재단은 그동안 지역 작가 175명의 한국화와 문인화·서예·서양화 작품을 엄선해 2938점을 구입했으며 314차례 실시한 토요 경매를 통해 2340여점을 판매했다. 주요 구매자는 수도권과 대전·

부산·강원 등 전국 미술 애호가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들로 이들은 선물용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토요 그림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강진에서는 명품청자 경매를, 장흥에서는 목공예품 경매를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등 그림경매가 토요 경매 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6주년 기념 토요 그림경매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제주·경기·대전 등지에서 200여명의 미술 애호가들이 경매에 참여해 한국화와 문인화·합작선 등 19점을 구입했다.

김경순 작 '독도' 등 3점을 구입한 강병국 경매대 교수는 "토요 그림경매가 지역 작가와 지역민이

함께 전통 미술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등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후 "경남도에서도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6주년 행사에는 한·일 학생 문화교류차원에서 히토츠바시 대학생 26명과 조선대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해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교류 기회를 가졌다. 열색공예, 서화그리기, 진돗개 공연, 전남도립극단인 진도·모도 사이 신비의 바닷길을 소개했다.

차주경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은 "토요 그림경매는 우수한 남도 미술품을 한 가격에 사고 신명나는 남도 볼거리도 함께 즐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 11일 열린 6주년 기념 토요 그림경매에는 일본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해 남도 미술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CNN도 감탄한 진도·관매도 절경

한국 아름다운 섬에 선정

미국의 뉴스채널인 CNN이 최근 진도군 등 한국 서남권의 유명 휴양지를 전 세계에 소개했다.

진도군은 "CNN의 여행전문 섹션인 CNN Go(www.cngo.com/seoul)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3개'에 관매도(사진)와 진도를 20위와 24위로 각각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관매도에 대해 "관매산(해발 219m)을 최고봉으로 해안 대부분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나, 북서쪽 해안은 모래가 풍부한 사빈해안이며 남쪽에는 가파른 낭떠러지(絶崖)가 잘 발달해 있는데 암석해안의 암벽에서는 해식동이 많다"고 소개했다.

쌍계사와 윤립산방, 매년 음력 4월 갈라지는 진도·모도 사이 신비의 바닷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에 위치한 신의도, 상태도, 홍도, 우이도, 가거도, 흑산도, 임자도와 함께 완도군 청산도, 완도읍, 보길도, 소안도 등 전남 서남권의 유명 휴양지를 집중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CNN GO는 "지역을 보고, 세계를 경험한다"란 주제로 지난 2009년에 출범한 아시아 문화정보 사이트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무안군 체험 프로그램

'숲 유치원' 운영 호응

무안군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산림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숲 유치원'을 시범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남양 유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물맞이골 산림욕장에서 원아 9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다.

군은 한국마사회 특별직접금을 지원받아 광주·전남 숲해설가협회 전문 숲해설가 4명을 초빙해 다양한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숲 유치원은 잔디광장, 폭포, 숲속 산책로 등 물맞이골 산림욕장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해 숲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과의 자연놀이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신안서 국제 철인 3종 경기 열린다

24~27일 선수 250명 등 1250명 참가

'2012 신안 자은 국제 철인 3종 경기'가 신안군 자은, 암태, 팔금, 안좌면 일원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린다.

전남 철인 3종 경기 코스는 전국에서 찾아온 선수단과 동호인 가족들을 위해 전례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중부권 자은·암태·팔금·안좌에서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동호인 가족을 위해 자은면 백길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동력 패들라이팅 체험 및 당기요트, 고무카약, 파워보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코스답사와 부대행사에 이어 26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기는 자은면

백길리 해수욕장에서 7시 30분 시작되며, 수영·사이클·마라톤을 17시간 이내 완주한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전남 철인 3종 경기 코스는 전국에서 찾아온 선수단과 동호인 가족들을 위해 전례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중부권 자은·암태·팔금·안좌에서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동호인 가족을 위해 자은면 백길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동력 패들라이팅 체험 및 당기요트, 고무카약, 파워보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 농산물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구매단 18명 초청 유통 시스템 점검후 협약

해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경기지역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된다.

해남군 땅끝 친환경농업주식회사(대표 김성수)는 최근 서울·경기지역 학교급식용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이병호 사장을 비롯해 구매단 18명을 해남으로 초청했다.

구매단은 해남지역 친환경농업 현황과 산지유통 시스템 등을 점검한 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땅끝 친환경농업(주)와 해남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이병호 사장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도 희망을 드리자"면서 해남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땅끝 친환경농업(주) 김성수 대표는 "쉬운 농사, 좋은 농사 친환경농업 보급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취소 청구 소송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

한전 30.3km 구간 92기 철폐 설치 계획

군산시민들이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군산 시내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전기 공급설비 345kV)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폐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합선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산시민들은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천여㎡에 30.3km의 송전선로와 철폐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한전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9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시 일파면 보석리 군산변전소~산북동 새만금 변전소의 30.3km 구간에서 92기의 철폐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산 시민들은 지난2009년 12월 군산시가 송전선로와 철폐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짜릿한 맨손 장어잡이

지난 11~12일 고창군 심원면 만들에서 열린 '2012 고창 갯벌 체험축제'에 참가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맨손으로 장어를 잡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전북지역 노인 5명중 1명 혼자 산다

6만여명...해마다 늘어

전북지역 노인 5명 중 1명꼴로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29만2182명 중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독거노인은 6만100여명으로 20%가량을 차지한다. 도내 독거노인은 ▲2007년 4만1484명 ▲2008년 5만519명 ▲2010년 5만9985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도 2006년 25만2000여명에서 2007년 26만6000여명, 2008년 27만2000여명, 2009년 28만4000여명, 2010년 29만2000여명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올해 128억 원을 들여 이들 노인 1만4000여명에게 '돌보미'를 투입, 홀로 사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한 뒤 의료 등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주민세 최대 4배 인상 부과

정읍시는 2012년도 8월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개인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것으로 읍면지역 8800원, 동지역은 9900원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배분시 삭감액은 6억8000만원이다. 이는 산정자료인 2011년 주민세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불이익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6억8000만원 수준의 패널티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부과내용을 보면 모두 5만12건에 6억8800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 부과됐다. 인상에 따른 추가 납부액은 2억73000이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분하는 교부세 4억9900만원이 삭감되지 않게 됨으로써 주민세 인상분과 교부세 미삭감액을 합쳐 모두 7억7천200여 만원의 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 등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의회에 시세조례 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받아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종량제 시행후 음식물쓰레기 36% 감량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 남원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되고 있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종량제 시행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3768t)에 비해

올해는 2394t으로 36.5%에 달하는 감량 효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꾸준히 감량율을 유지토록 시민홍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